

생산량 급증, 새로운 계란생산지

□ 취재/권동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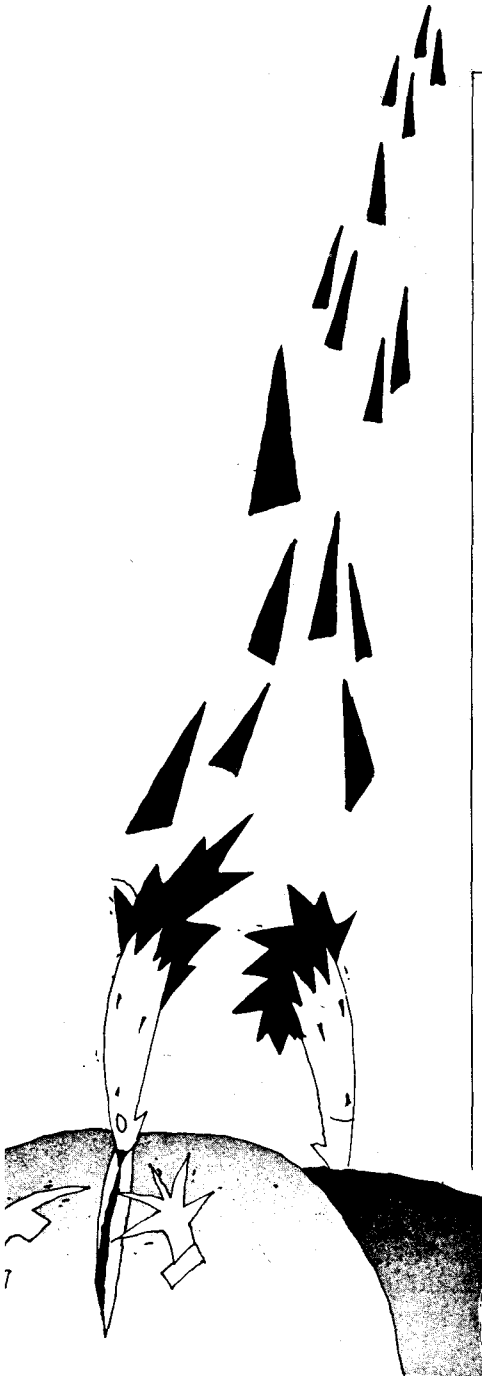
전북지역 계란산업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하나는 생산 기반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또 하나는 유통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계란생산 1년전 보다 30~40% 증가

최근 전북계란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대량 유입되고 있으며 심지어 경상도, 강원도에까지 흘러들어가고 있다. 물론 수도권 지역 생산자들은 시세를 흐트리는 주범역할을 하고 있다며 원망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계

란은 1일 130만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1일 수요량은 70~80만개로서 절대량을 외부로 반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과거 외부에서 계란이 들어왔으나 3~4년전부터 오히려 외지로 반출하고 있다.

지역 관계자들은 계란생산량이 1년 전에 비해 30~40% 정도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수수가 급속히 늘어나 산란을 기다리며 육추·육성중인 닭들이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어 이들이 가세한 몇달후는 생산량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하리라는 예상이다.



산란계 사육수수 2년새 2배

농림수산부 가축통계조사결과에 의하면 88년 12월 127만수, 89년 12월 153만수가 사육되었으나 90년 3월 172만수, 6월 178만수, 9월 206만수, 12월 247만수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2년전인 88년에 비해 94%가 증가하였고, 1년전에 비해 61%가 증가한 수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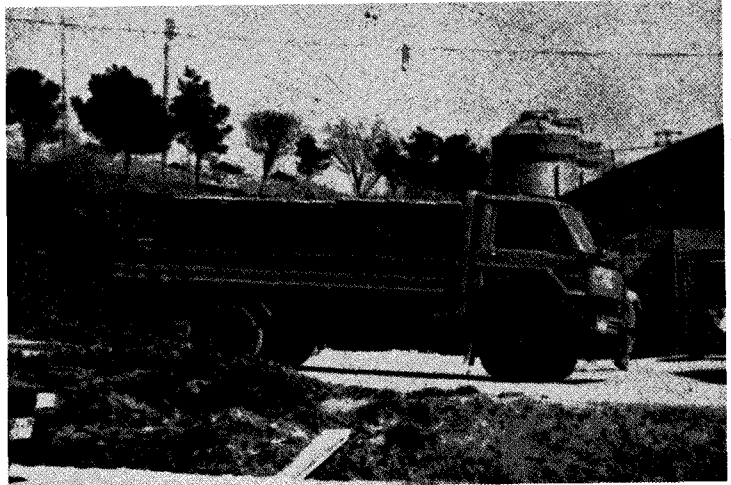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급속히 사육수수가 증가된 이유는 최근 양계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 건축허가나 환경단속 등이 타지역보다 용이로우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기반으로 선택의 폭이 좁은 이 지역 농민들에게 호황기 동안 양계업이 할만한 직업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각 농장별 규모는 평균 1만수 이내로 3만수 정도의 농장이 손에 꼽을 정도로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계란가격은 본회 전북지부 난가 조절위원회에서 조절한다. 난가 조절위원회는 원래 생산자와 상인으로 구성되었으나 89년 상인조직이 와해되면서 생산자 7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난가 조절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은 전북 전지역에서 거의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한다.

영세한 중도매상이 주류

유통구조는 정상적인 도매기능을 갖춘 도매상이 10명 정도에 불



과하며, 대부분 이보다 소규모인 중도매상들로서 전주에만 30명, 전북 전체에 70명 정도 활동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북양계협동조합이 제기능을 발휘하면서 이지역 계란 유통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도매상은 하루 5~15만개를 처리하며 서울 등 외부상인과의 거래를 하고 있다. 외부와의 거래는 대부분 채화된 계란을 처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고정거래선을 갖고 계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도매상은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한다.

중도매상은 대개 하루 300~450판 정도 취급한다. 계란차를 손수운전하며 농장집란부터 소매점 배달까지 상인이 직접한다.

고시된 계란가격은 철저히 준수

계란거래가격은 난가 조절위원회에서 고시한 시세에서 2원을 뺀 가격이 농장집란가격이 된다. 도

매가격은 고시가격에서 1원 더한 가격이 되어 도매상은 개당 3원의 이윤을 얻는다. 그러나 3원 마진은 타지역과 거의 비슷한 실정이나 집란가격이 일정하고 상인들이 별다른 기교를 부릴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어 순수익은 서울상인보다 형편없다는 지적이다.

상인들은 농장과 거래시 농장측이 요구하면 천수당 10~15만 원 정도의 계약금을 걸고 있다. 또 거래당사자간에 집란기로 정한 주기에 의해 반드시 약속된 날짜에 집란되고 있다. 계란대금은 곧바로 현금으로 지불되고 있어 이러한 면은 전북지역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이다.

따라서 생산자와 도매상과 거래 관계는 계란가격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 다만 계란의 품질이 나빠질 경우 상인이 시정을 요구하면 생산자가 이를 받아주는 정도로 안정을 이루고 있다.

전북양계조합 1일 50만개 처리

지금까지 상인들에 의해 주도되어 오던 계란유통이 전북양계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전북양계 협동조합은 88년 10월 출범해서 초창기 조합원의 비협조와 상인들과의 마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후 각고의 노력끝에 조합이 제자리를 찾고 있어 생산자의 협조 속에 상인과의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어느정도 안정권에 들어서고 있다. 특히 시간당 2만개씩 처리하는 GP 시설 2개라인을 갖춘 집하장이 작년 12월부터 가동되면서 그 기능은 더 활성화되고 있다.

집하장은 현재 하루 50만개를 취급하고 있다. 이중 GP 처리를 한 계란은 21만개 정도가 생산되

고 있다. 전북양계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한 계란을 도매상에게 판매하므로써 실질적인 대도매상 역할을 하고 있다. 계란은 전북지역내 도매상과 서울, 인천, 수원, 강릉 등 외부상인에게 판매하고 있다. 조합 취급물량 50만개 중 90% 정도는 외부상인에게 판매하고 있어 전북양계조합이 추가 생산된 전북계란을 도외로 반출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조합에서 도외판매를 담당

조합은 농장에서 일반도매상과 같은 가격에 집란한다. 집란가격에서 운임, 인건비를 포함한 수수료 1원을 붙여 도매상에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도매상은 농장에서 직접 집란하는 것이 조합과의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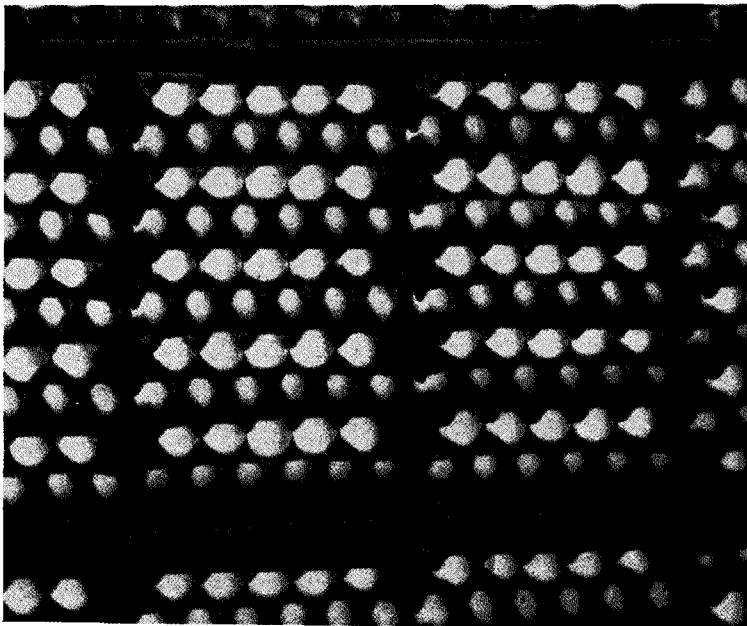
래보다 개당 이윤이 1원씩 추가되어 농장 직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결국 향후 생산이 더 증가될 계란은 외부와의 거래 여력이 부족한 도매상 보다 조합에서 담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생산자들은 농장수취가격을 타 지역 보다 더 높게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 이 지역 계란을 수도권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생산지가 될 것이 틀림없어 농장수취가격이 상대적으로 열세로 반전되리라 우려하고 있다. 지금도 도매상은 서울과 거래시 개당 2원의 차이가 있어야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진다.

상품란의 불모지

전북지역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계란거래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계란의 상품화 등 고급계란 소비는 불모지이다. 차연란, 유정란 등의 생산이 활발하나 외부로 판매되고, GP 처리 후 포장란이 생산되나 외부업체의 위탁생산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고창 위생란이 고급위생란의 대량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고창에서 생산된 위생란은 전국에 판매할 계획이어서 상품화면에서도 질적, 양적 성장이 기대된다.

새로운 계란생산지로 부각된 전북지역은 양계산업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깨끗한 계란은 소비를 증가시킨다.